

갈 곳 많은 주말 어디부터 즐겨볼까

500년 전통 용출다리기 체험·먹거리 가득한 전주 맛있는 순창밥상 한상 가득 눈이 즐거운 국화축제까지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가을이 소중해졌다. 단풍은 산꼭대기에서 시작, 어느새 도심까지 내려와 나무들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이고 있다. 방구석에만 텅골지 말고 자녀 손을 잡고 가을 정취를 즐기러 나서자.

이번 주말,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는 가을 여행의 덩이다.

북평용출다리기 재현행사

제 9회 북평용출다리기가 28일 해남군 북평면 북평힐링공원에서 열린다.

북평 용출다리기는 매년 이 무렵 북평면 남창마을 일원에서 행해져 오는 민속놀이이다.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잦은 왜구 침입에 주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산군(1476~1506년) 일기와 동국세시기 등 문헌에 기록이 전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5m 길이, 50cm 굵기에 무게만도 수톤에 달하는 대형 용출을 잡고 아드림과 우드림 양 편으로 나누어 힘을 겨룬다.

여성을 상징하는 아드림이 승리하면 풍어, 남성을 상징하는 우드림이 승리하면 풍년이 든다고 전해진다.

500년 가까이 이어오던 용출다리기는 한국전쟁 이후 40여년간 중단됐다.

2009년 주민들의 노력으로 재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북평면 마을 주민 150여명이 아드림과 우드림 편으로 나누어 시가 행진 후 북평힐링공원에 집결, 자웅을 겨룬다.

부대행사로 연날리기, 소원씨 쓰기, 난타와 풍물놀이, 달집 태우기, 강강술래 등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로 마련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전주비빔밥 축제

'2017 전주비빔밥 축제'의 막이 올랐다. 올해 비빔밥 축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주 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장예인, 우체국 집배원, 소방관, 문화해설사 등 전주식 각계 대표들이 모여 비빔



“내년엔 풍년일까 풍어일까” 지난해 열린 북평용출다리기. 주민들이 대형 용출을 잡고 힘을 겨루고 있다. <해남군 제공>

밥을 비비는 '대동비빔퍼포먼스'는 개막식 하이라이트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는 5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이 선을 보이며 전국 요리 관련 학과 학생과 전문가 등 900여명이 전주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 '전국 요리경연대회 라이브 경연' 등은 관심이 쏠린다.

28일에는 총경로 차있는 거리에서 전주시 33개동 주민과 관광객 3000여명이 '대형 비빔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다. 비빔밥 재료를 찾아 비벼먹는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의 유래를 체험해보는 '비빔전설', 어린이요리사 1000여명이 비빔밥을 체험하는 '용기종기비빔밥'과 세계의 다양한 거리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된다.

조직원 관계자는 "한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야단밥석! 맛있는 순창

순창의 농·특산물로 만든 순창밥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순창군은 오는 28일 군청 앞 경전변에서 '야단밥석! 맛있는 순창이 열린다!' 행사를 연다.

특히 순창밥상체험을 비롯, 특산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프로그램 중 순창 밥한그릇 행사의 경우 순창의 유명음식점, 가정식명인 등과 이트리 김옥성 셰프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점심 시간에는 전통음식 시식을, 저녁에는 퓨전음식 맛보기를 할 수 있다.

순창군은 참여인원만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메주만들기 체험, 지역 장류 소스 전시전 등이 부대 행사로 열리고 순창 객사 외 향가터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배불러 동네 한바퀴'도 선착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단순히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닌, 순창의 문화가 담긴 음식을 맛보고 소개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순창=정양근기자 jyg@kwangju.co.kr

섬진강 예감축제

구례군은 오는 28일 구례읍 유곡마을 입구 강변공원에서 '섬진강 예감축제'를 연다.

섬진강 일대 주민들의 주요 생산 작물인 감을 테마로 한 행사로, 주민과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억의 가을 운동회, 감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귀농·귀촌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인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추진,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례 같은 지리산·섬진강 등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저장성도 뛰어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구례에서는 1300여 농가가 연간 5200t의 감을 생산하고 있다.

구례군은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달 13일까지 구례 5일 시장이 열리는 날(끝자리가 3·8 일)에 맞춰 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축제를 계기로 구례 감도 맛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jlt@kwangju.co.kr

부안 가을애(愛) 국화빛 축제

제 7회 부안 가을애(愛) 국화빛 축제'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국화'를 테마로 50여명의 국화울타리 회원들의 작품 1만5000여점이 전시된다.

야간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LED조명으로 빛 축제도 준비했다.

국화울타리 관계자는 "정성껏 키워 낸 국화들을 감상하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부안=김민준기자 jun@

화순 국화향연

'화순 국화향연'은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화순읍 남산 일대에서 열린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국화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너머 국화밭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축제장 규모가 5ha로 넓어졌고 기간도 지난해보다 6일 늘렸다.

국화동산(3ha), 야외전시장(2ha) 일대에 50만주의 국화가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을 형상화한 '고인돌 게이트'를 비롯, 입석대, 핏대바위, 공룡, 운주사 석탑과 복숭아, 파프리카 등 화순의 대표 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435점도 탐방로 주변에 배치, 사진을 찍기에 좋다.

화순=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알프스의 요들송 곡성에서 즐겨요

제2회 월드 요들데이 국제음악회



지난해 열린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 전경. <곡성군 제공>

오늘부터 3일간 요들페스티벌

곡성의 폴라 윌리엄슨, 호주 레이디 킴미 등 세계 요들 공연(28일)이 열린다.

곡성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제 3회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를 연다.

국내 요들 50년을 맞아 요들 역사를 정리하는 학술세미나(27일), 유아요들단인 봉선어린이요들합창단 공연, 미

'김홍철과 친구들', '인천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 '한국바젤요들클럽' 등의 공연은 29일 진행된다. 가장 긴 악기인 알핀 연주인들의 연주도 열린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건강에 좋은 친환경 '보성 참다래' 본격 출하



참다래를 수확하고 있는 주민들. <보성군 제공>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올해산 보성 참다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품질 재배로 가격도 나쁘지 않아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보성참다래 재배에 350여 농가가 300ha에서 4300t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참다래 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약 47%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20%가량이다.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상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작황이 좋다. 생산량도 평년작보다 웃돌 것으로 보성군은 예상했다.

품질도 어느 해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달콤하면서 신맛이 나는 고품질의 참다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생산량 가운데 300t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해 농가 소득 창출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성 참다래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것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대장 안에 독소를 제거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산도 빈혈·기혈이 출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뼈 형성에 필요한 미네랄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